

## 이주노동자 110만 시대, 통합적 외국인력정책 마련 필요

- 4.3.(금)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금)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 현장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개편하여 수급설계·체류지원·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다.

\* 국정과제 92-4번 이주노동자 통합 취업지원 및 고용허가제 개선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취업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현재 취업비자별 주관부처가 다르고 도입-이직-능력개발-노동조건 보호 등 노동시장 관점의 통합적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기반과 권익보호방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에는 노동계·경영계·현장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규용 선임연구위원(노동연)은 “외국인력정책은 비자·체류관리와 노동시장 정책이 두 축이지만, 현재는 비자발급 정책으로만 접근되어, 도입 이후 인적자원관리 및 노동시장 정책이 연계되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외국인력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다양한 취업비자

관리 체계를 개편하여 도입·선발, 초기 적응, 숙련형성, 경력개발, 귀국·정착의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통합 설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철승 대표(경남이주민센터)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처별 분절적 관리구조와 권익보호의 공백을 지적하며, “**범정부 협의·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권리 보장과 단계적 숙련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숙련노동의 가치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김기선 교수(충남대)는 “**현행 외국인고용법이 고용 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법률의 적용범위를 일하는 전체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전환하고, 이들의 적정 도입과 고용관리, 차별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통합적 외국인력 도입·관리를 위한 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제안했다.

노사단체, 전문가 등 토론자들은 내·외국인 노동자 상생을 위한 효과적인 외국인력 활용과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통합적 외국인력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이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조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TF 논의와 토론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은 지금, 이들과 어떻게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속 가능하고 상생하는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전체 외국인력에 대한 통합적 제도 및 수급설계, 숙련형성, 체류지원 등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 개요

2. 고용노동부 차관 인사말씀

|       |                  |     |            |                                          |
|-------|------------------|-----|------------|------------------------------------------|
| 담당 부서 | 국제협력관<br>외국인력담당관 | 책임자 | 과 장        | 한은숙 (044-202-7157)                       |
|       |                  | 담당자 | 사무관<br>주무관 | 손동희 (044-202-7149)<br>문지희 (044-202-7154) |



- **[일시 · 장소]** '26.4.3(금) 14:00, 로얄호텔 2층 로얄볼룸
- **[주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정책 기반, 외국인력 도입·관리, 권익보호방안 등

□ **참석자(안)**

- (인사말씀) 고용노동부 차관
- (발제) ①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선임연구위원  
 ② 경남이주민센터 이철승 대표  
 ③ 충남대학교 김기선 교수
- (토론) 좌장 배규식 前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노·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임은주 정책실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정하미 선임
  - (전문가) 연세대학교 이종관 교수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이영 센터장  
 이민정책연구원 최서리 선임연구위원
  - (정 부) 외국인력담당관 한은숙 과장

□ **진행 순서(안)**

※ 행사 전체 공개

| 시간          |       | 내용                                                                                                                                                                                                                                         |
|-------------|-------|--------------------------------------------------------------------------------------------------------------------------------------------------------------------------------------------------------------------------------------------|
| 14:00~14:10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자 소개</li> <li>▪ 인사말씀 - 고용노동부 차관</li> <li>▪ 기념촬영</li> </ul>                                                                                                                                      |
| 14:10~14:55 | (`4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외국인력정책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규용)</li> <li>②통합적 이주노동자 권익보호 방안(이철승)</li> <li>③통합적 외국인력정책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향(김기선)</li> </ul> </li> </ul> |
| 14:55~15:55 | (`6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li> </ul>                                                                                                                                                                                     |
| 15:55~16:00 |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무리</li> </ul>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입니다.

오늘 이주노동정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관계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조업의 생산라인부터, 농촌의 수확 현장까지,  
우리와 함께 땀 흘리는 이주노동자가  
어느덧 11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산업현장의 **부수적인 인력**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함께하는 동료**이자,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소중한 이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며  
**더 많은 외국인력** 도입을 요청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급격한 외국인 확대**가  
**내국인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타운홀미팅**에서  
우리 산업현장이 **저임금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방식이  
**지속 가능한지** 질문을 던지신 바 있습니다.

\* 울산 타운홀미팅('26.1.23.)에서 울산시 조선업 분야 광역형 비자(E-7-3) 관련하여, 값싼  
외국인 고용으로 내국인 고용 기회 잠식 및 지역경제 부정적 영향 우려에 대해 지적

이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를 넘어,  
이주노동자와 어떻게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가 전체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통합적 외국인력 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분야’**에 **‘어떠한’** 외국인력을  
**‘어느 정도 규모로’** 도입할 것인지  
정교한 분석과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일하는 모든 외국인**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노동 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이기 쉬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율**하고,  
**여러 부처**에 걸친 복잡한 제도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세 달간의 논의 과정에서, **노사와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첫째, 취업비자는 다양하지만  
모두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노동자”라는 관점에서,  
전체 외국인력을 아우르는  
통합적 제도와 수급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비숙련 외국인력이 현장에서 숙련을 쌓아  
준숙련·숙련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이주노동자 누구나 낯선 이국땅에서 잘 정착하고  
노동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체 이주노동자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지원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TF의 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그간의 TF 논의와 오늘 주시는 고전을 바탕으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로드맵은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단편적 대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상생하는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외국인력 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 외국인력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고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